



# 보전되는 한강, 그 발원지를 찾아서

조일성 / 本協會홍보부장

옛부터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불려왔으며 문명은 강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강물은 국토의 젖줄 또는 대동맥이라 부르기도 한다.

양자강, 황화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 갠지스강, 그리고 한강, 낙동강등 큰 강유역에는 빠짐없이 큰 문명이 일어났으며 물을 잘다스린 나라는 번성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 강은 늘 역사속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강은 오늘을 사는 인간에게 많은 고마움을 주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이루고 논밭에 물길을 대주고 뱃길이 되고 우리가 마시는 식수를 공급해 준다.

그럼 이처럼 인간과 떼어 놓을 수 없는 江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사뭇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강이 처음 샘솟는 발원지의 기록은 먼저 고대

“

옛부터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불려왔으며 문명은  
강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강물은 국토의  
젖줄 또는 대동맥이라 부르기도 한다.

”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택리지, 세종실록지리지등,그리고 현대문헌 대다수는 1918년 조선총독부 임시 「토지조사국에서 한반도를 완전 합방할 목적으로 조사 간행한「조선지리지」를 기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비교해 보면 예나 지금이나 강의 모습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발원지는 각양각색이다. 한 예로 한강의 발원지를 보면 고대문헌에는 모두 오대산 우통수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문헌은 대덕산, 태백산맥, 태백시 등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그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없다.

우리 민족의 젖줄인 한강은 중부 태백산맥의 서쪽에서 출발하여 강원도, 충청북도, 경기도를 동서로 흘러 황해로 흐른다. 상류는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갈리고 물의 양은 풍부하고, 강유역에 춘천, 영월, 여주 등의 분지를 이루며 하류에 김포평야를 형성하여 국내굴지의 곡창지대를 이루는 관개지역과 가항거리가 전국 제 2위인 강이기도 하다.

면적이 2만 6천 276 km<sup>2</sup>, 총길이 514 km인 한강은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시되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이조시대때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후 지금까지 줄곧 수도를 방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한강과 연결된 속담이 일상용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강에 가서 목욕한다.(일부러 먼 곳에 가서 해 보아야 별로 나은 것이 없다는 뜻) 한강물이 굵로 흐른다(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 한강에 돌던지기(漢江投石: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다.시루에 물붓기)등이다.

이처럼 중요한 한강의 근원지는 어디일까.

천의봉 정상에서 북쪽으로 가면 우리나라 고개 중에서 제일 높다는 해발 1,285 m의 싸리재가 나오는데 이 싸리재에서 북쪽으로 약 30분간 올라가면 한강이 시작되는 金台山이 나온다.

이곳 정상에서 서북편을 보고 능선을 넘으면 투명한 샘물이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솟아 흐르는 곳이 있다.여기가 바로 한강의 發源地인 고목나무샘이다.

사시사철이 마르지 않고 한 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고목나무샘은 용비어천가에도 나온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마르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간다”.

1천 2백리의 한강 물줄기는 여기서 출발하여 계곡을 따라 흘러 내려간다. 약초 캐는 이들의 말에 의하면 샘물이 계곡을 따라 숨바꼭질을 몇 차례 거듭하다가 갑자기 물이 팔팔 쏟아내려 항아리같은 웅덩이를 수십개 만들고 주위의 바위들을 온통 파란돌 이끼로 단장시켜 최고의 절경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항아리 동이골이라 불리는 곳이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깊은 산중의 절경이다.

오대산 우통수는 고대문헌에서 한강 근원지로 밝히던 곳인데, 동국여지승람이나 택리지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다. “오대산 西台 밑에서 샘이 용출하니 한수의 근원이다”. 삼국유사에도“역사의 현장으로 가장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우통수인데 이제는 네모난 우물가에 잡초만 무성한 채 물은 희뿌연게 썩어 비단 개구리의 놀이터로 방치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

오대산 비로봉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은 고목

“

사시사철 마르지 않고  
한겨울에도 얼지 않는다는 고목나무샘은  
용비어천가에도 나온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마르므로 내를 이루어 바다에 간다.

”

나무샘에서 내려온 물줄기와 합쳐져 영월을 돌아 충주로 흘러든다.

여기까지 달려온 남한강은 금강산 단발령에서부터 태백준령의 틈바구니에서 헤집고 흘러 내려온 북한강과 양수리 (두불머리)에서 만나 도도함을 자랑하며 오늘도 흐르고 있다.

한강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는 「아리수」라 하였고 신라때는 「이하」, 고려때는 「열수」로 하다가 조선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한강」

또는 「한수」라 불리운 그 이름처럼 한반도의 운명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양 8경중 4경과 함께 운치가 있는 월악산 미륵사가 있다. 옛부터 미륵사 아래까지 물이 차면 나라가 번성하고 통일이 된다는 전설이 있다. 그때 누가 충주댐을 예상했겠냐마는 어쨌든 나라가 번성한다는 그 물이 지금 차오르고 있음을 보고 선인들의 예지를 느껴 본다. \*

제59차

## 全美국수질오염관리총회 및 전시회

해외연수 참가요청

- 기 간 : 1986. 10. 1 ~ 10. 11
- 일 정 : LA → 밴쿠버 (만국박람회  
빅토리아섬) → LA (디즈니랜드 · 수질학회 및  
전시회참가) → 호놀룰루 (폴로네시안문화센터)
- 참가인원 : 10명 이상 20명 이내
- 참가선발기준 : 회원사 임·직원중 참가를 희망하는자 또는  
관련단체 임·직원
- 신청요령 : 접수처 (본협회 총무부 TEL. 753-7640 · 7669)  
(한주여행사 TEL. 732-1501)  
신청마감일 (1986. 8. 15)

樹  
法人 環境保全協會